

GCC 국부펀드의 투자동향과 전망

작성자 : 손성현 (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3월 27일

■ 최근 GCC 국부펀드의 투자전략이 자국 및 역내 투자비중을 늘리고 산업발전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해외기업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.

- 이전의 GCC 국부펀드는 영미권의 우량 국채,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주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투자, 신흥국 기업 M&A 등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였음.
- 최근 GCC 국부펀드는 장기적인 수익증대보다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자 자국 및 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-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 및 기술이전을 꾀하고 있음.

그림 1. GCC 국부펀드별 자산 규모

(단위: 십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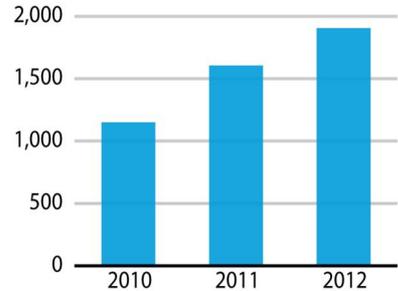


주: 자산 규모는 2013년 초반 기준.

자료: SWF institute, national sources, 재인용: Oxford Analytica, 2013. "Gulf wealth funds gear up for strategic investment," (March 19)

그림 2. GCC 공공부문 해외자산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IMF, IIF, 재인용: Oxford Analytica, 2013. "Gulf wealth funds gear up for strategic investment," (March 19)

■ GCC 국부펀드들은 대부분 전략적 투자확대를 추구하지만 국가별로 위험추구성향, 중점투자처, 운영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.

-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왔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투자은행 출신 파하드(Fahad al-Mubarak)가 2011년 12월 중앙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격적인 해외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음.
-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-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는 자국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반면 카타르는 유럽 우량

기업 및 신흥국 기업에 대한 지분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.

- 카타르, 쿠웨이트는 해외 투자은행에 펀드운영을 주로 위탁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.

표 1. 주요 GCC 국가의 국부펀드별 특성

국가	주요 펀드명	특징
아랍에미리트	ADIA / Mubadala / IPI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국 내 국부펀드별 전략 상이 ADIA: 안정적 투자를 통한 장기수익 추구 Mubadala: 고위험 고수익 추구, 자국산업 투자 IPIC: 에너지관련 국제기업 투자 확대 · 펀드운영에 자국민 활용 확대
사우디아라비아	SAMA Foreign Holding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전추구 → 일부는 위험자산에 투자 · 자국 내 투자확대 · 중앙은행에서 관리, 자국민 활용 확대
쿠웨이트	KIA: Kuwait Investment Authority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수적이고 안정적 투자(큰 변화 없음) · 외국계 자문사에 위탁운영 지속
카타르	QIA: Qatar Investment Authority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장 공격적 투자 · 유럽 우량기업, 석유화학, 가스관련 국제기업 지분 확대 통한 전략적 해외투자 가장 활발 · 왕족에 의한 관리, 정치적 목적으로도 국부펀드 활용

자료: Oxford Analytica, 2013. "Gulf wealth funds gear up for strategic investment." (March 19) 참고로 저자작성.

■ GCC 국부펀드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자국 산업육성 기조의 확대와 해외기업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증가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- GCC 국부펀드는 포스트오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기술이전을 통한 자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를 보다 확대할 예정임.
- 유럽 및 미국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국부펀드를 통한 자금유치 또한 지속될 것임.

〈자료: Oxford Analytica, Invesco 2012, BCG 2012〉